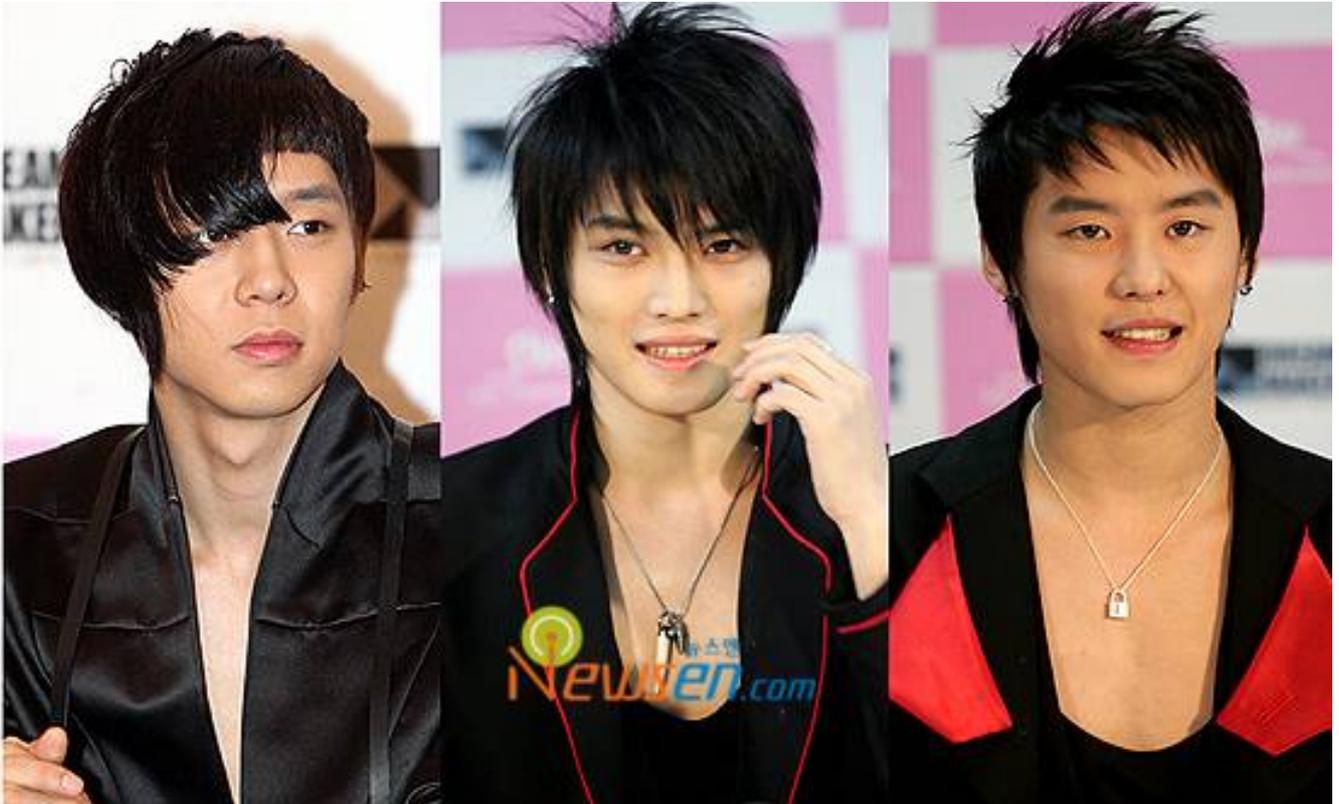


동방신기-SM, 법정소송 결과 언제쯤? "당장 나오지 않을 듯"

입력 2009. 9. 30. 15:15 · 수정 2009. 9. 30. 15:15



[뉴스엔 이미혜 기자]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동방신기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SM)간의 전속계약 분쟁관련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9월 30일 뉴스엔과 전화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나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오늘도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측은 9월 11일까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이런 저런 주장이 펼치고 있어 합의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양측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최강창민(본명 심창민)을 제외한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고려,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합의를 권고했지만 결국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지난 7월,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